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멘토링 활동의 경험과 교훈*

Experiences and Lessons from the Reading Mentoring Programs in School Libraries

노 지 현(Jee-Hyun Rho)**

윤 유 라(You-Ra Youn)***

< 목 차 >

| | |
|------------------------|-----------------------|
| I. 서론 | 요구사항 |
| 1.1 연구배경과 목적 | III. 독서 멘토링 활동의 경험 |
| 1.2 연구방법과 내용 | 3.1 독서 멘토링 활동의 배경 |
| II. 부산시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실태 | 3.2 독서 멘토링 활동의 내용 |
| 2.1 학교도서관의 일반적 현황 | 3.3 독서 멘토링 활동의 효과 |
| 2.2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실태 | IV. 독서 멘토링 활동의 한계와 교훈 |
| 2.3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에 대한 | V. 결 론 |

초 록

학교도서관이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학교도서관의 운영이나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도움을 청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처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벅찬 실정에서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업무까지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공공도서관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인 부산시립시민도서관과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멘토링 활동'을 시범적으로 전개해 보았다. 이 연구는 지난 7개월 간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독서 멘토링 활동의 효과에 대해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독서활동, 독서 멘토링, 실행연구

ABSTRACT

Cooperation with public libraries for strengthening the solid foundation and the reading education of school library have been recommended in Korea. However with the immensity of the task, public libraries are under considerable pressure for the unilateral suppor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developed and implemented the reading mentoring programs for school libraries with the help of public libraries, LIS schools, and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and the feasibility of the reading mentoring programs for improving the reading education in school libraries. This study emphasized to derive a lesson of immeasurable value from 7 months' experience in the 2 elementary schools.

Keywords: School libraries, Reading instruction, Reading education, Reading guidance, Reading mentoring, Action research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rho@pusan.ac.kr) (제1저자)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ryoun@deu.ac.kr) (공동저자)

• 접수일: 2012년 8월 28일 •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13일 • 최종심사일: 2012년 9월 21일

I.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독서교육을 지원하는데 있어 학교도서관이 핵심 인프라임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독서를 단순히 권장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을 뿐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에서 추진해 온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외양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학생들의 인지발달이나 학습능력에 따른 내실 있는 독서교육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사서교사)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학교도서관 운영이나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도움을 청하는 학교가 적지 않고, 공공도서관에서도 최근 ‘학교도서관지원센터’나 ‘학교도서관지원과’, ‘학교도서관협력팀’ 등과 같이 직제를 개편하여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공공도서관의 주요 업무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원 혹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처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벅찬 실정에서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업무까지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¹⁾ 학교도서관의 입장에서도 공공도서관의 형식적이고 일회성 차원의 지원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인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 멘토링’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사서교사의 확보를 통해 학교도서관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독서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서 멘토링’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 사서, 사서교사(사서) 또는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문헌정보학과 교수진 등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결성하고, 독서 멘토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몇 차례에 걸친 논의와 사전조사를 통해, 우리 연구팀은 공공도서관과 일선 학교, 그리고 대학의 문헌정보학과가 함께 참여하는 독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사서교사(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서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²⁾, 공공도서관에서 기획 및 프로그램 지원을 총괄하고,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최대한

1) 이기명, 학교도서관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모색: 울산지역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3), p.10.

활용하면서,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사서가 독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 연구는 우리 연구팀의 그간의 경험과 고민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발표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직접 실천하면서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 도서관 현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더불어, ‘연구를 위한 연구’, ‘현장과 괴리된 연구’가 아니라 철저히 현장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이러한 실천적 연구도 학술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작업이라는 우리 연구팀의 확신 때문이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팀이 지난 7개월 간 부산시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학교도서관의 독서 멘토링 활동의 경험을 고찰하고, 그 효과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방법과 내용

이 연구는 우리 연구팀의 생생한 경험에 바탕을 두는 실천적 연구로서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실행연구는 일상적 경험에서 출발하고, 체험적 지식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며, 이론의 정립이나 실증적 효과의 검증 보다는 현장의 개선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연구방법이다.³⁾ 실행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곧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연구 문제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고, 경험 속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실천을 재계획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이나 현실 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데 특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⁴⁾ 독서 멘토링 활동은 멘토와 멘티의 체험을 통한 과정적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행연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참여단과 시범운영참여단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연구참여단의 주된 역할은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서 독서 멘토링 활동의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고, 독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었다. 연구참여단은 문헌정보학과 교수진 2명과 공공도서관 사서 8명, 초등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시범운영참여단은 연구참여단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독서 멘토링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시범운영참여단으로는 부산지역 2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재학생 51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프로그램의 기획을 위해 2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진 2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2) 부산시의 경우 644개의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중에서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38개교(5.9%)에 불과하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 ‘비정규직 사서’를 배치하였는데, 2012년 현재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130명(초등학교 91개교, 중학교 39개교)의 비정규직 사서가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별 학교 차원에서 도서관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21개교)도 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사서교사나 사서 등 전담인력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서관은 모두 455개로, 전체 학교 중 70.7%에 이르고 있다.

3) 김미옥, “사회복지학에서의 실행연구 적용과 유용성,”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3호(2009), p.182.

4) 이용숙 등, 실행연구방법(서울 : 학지사, 2005), pp.19-20.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연구의 진행 과정과 데이터의 수집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우리 연구팀은 4차례의 회의를 통해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지원(협력)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와 공공도서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부산시 소재의 모든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총 644개교)와 모든 공공도서관(분관을 제외한 24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문제점 인식에 따른 해결 방안을 연구팀 전원이 공동으로 모색하는 한편,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독서 멘토링 활동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독서 멘토링을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 소재 2개 초등학교에서 총 10회에 걸쳐 독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시범적으로 운영한 독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멘토)이 작성한 전체 프로그램의 교안과 그때그때 일화 형식으로 기록한 활동 일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멘티)과 해당 학교 교사들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졌다.⁵⁾

II. 부산시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실태

2.1 학교도서관의 일반적 현황

학교도서관의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우리 연구팀에서는 부산시 소재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644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4월 20일부터 2012년 5월 4일까지 15일간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응답한 학교는 총 508개교였다(응답율 78.9%).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결측치가 10개 이상이거나 답변에 오류가 많은 7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01개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에 응답한 501개교의 구성은 초등학교가 267개교(53.3%), 중학교가 142개교(28.3%), 고등학교가 81개교(16.2%), 그리고 특수학교가 11개교(2.2%)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부산시의 경우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38개교에 불과하였다.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주로 교과교사가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414개교/82.6%),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신분은 '초등학교 교사' 240명을 제외하고 '국어나 한문교사'가 139명(전체의 27.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학교도서관을 담당할 경력

5) 실행연구는 '계획 → 실행 → 반성과 성찰 → 실행 방안 재모색(계획) → 개선안 실행' 순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실행연구는 완결된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형성해 나가는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독서 멘토링을 시행해 본 후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다루고 있다. 개선 방안을 대한 새로운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며, 2012년 하반기에 다시 개선된 방식의 독서 멘토링제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은 '5년 미만'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응답자의 과반수(56.1%)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 현재 부산지역 학교도서관의 절반 이상이 학교도서관 담당 경력이 거의 전무한 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실정이라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직 경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비교적 '신임' 교사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학교도서관의 운영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 쉽게 추측할 수 있었다.

〈표 1〉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사서교사 포함)의 경력

| 학교도서관 담당 경력 | 빈도 | 퍼센트 | 전체 교직 경력 | 빈도 | 퍼센트 |
|-------------|-----|-------|----------|-----|-------|
| 1년 미만 | 59 | 11.8 | 0~5년 | 105 | 21.0 |
| 1년이상~2년미만 | 134 | 26.7 | 6~10년 | 98 | 19.6 |
| 2년이상~3년미만 | 88 | 17.6 | 11~15년 | 76 | 15.2 |
| 3년이상~4년미만 | 80 | 16.0 | 16~20년 | 52 | 10.4 |
| 4년이상~5년미만 | 33 | 6.6 | 21년~25년 | 72 | 14.4 |
| 5년이상 | 93 | 18.6 | 26년~30년 | 48 | 9.6 |
| 무응답 | 14 | 2.8 | 30년 이상 | 31 | 6.2 |
| 합계 | 501 | 100.0 | 무응답 | 19 | 3.8 |
| | | | 합계 | 501 | 100.0 |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학교도서관은 전문인력이나 담당교사의 부재 상태에서 대부분 운영되고 있었다. 74%에 해당하는 370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었지만, 학교도서관 담당 인력의 체류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학교가 무려 317개교(63.3%)에 이르고 있었다(〈표 2〉 및 〈표 3〉 참조). 특히, 사서교사나 사서가 아닌 교과교사에 의해 학교도서관이 운영되는 경우 이들의 1일 평균 도서관 체류 시간은 단지 1.41시간에 불과하였다. 심지어 이들 학교 중 37.0%(153개교)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보조하는 '학부모 도우미'나 '학생 도서부' 인원조차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학교도서관을 관리·운영할 최소한의 여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러한 사실은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전담인력의 확보'라고 답변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⁷⁾

6) 이러한 결과는 학교도서관 업무를 '스스로 자원해서' 담당한 교과교사가 단지 12.5%(52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연수나 교육시간은 88.2%(256개교)에서 응답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였으나, 이 질문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이처럼 높다는 사실만으로도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 이번 조사에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전담인력'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대표적인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표 2〉 학교도서관 개방 시간(1일 기준)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1시간 이하 | 18 | 3.6 |
| 1~3시간 이하 | 19 | 3.8 |
| 3~6시간 이하 | 89 | 17.8 |
| 6~9시간 이하 | 357 | 71.3 |
| 9시간 초과 | 13 | 2.6 |
| 무응답 | 5 | 1.0 |
| 합계 | 501 | 100.0 |

〈표 3〉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체류 시간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1시간 이하 | 317 | 63.3 |
| 1~3시간 이하 | 52 | 10.4 |
| 3~6시간 이하 | 23 | 4.6 |
| 6~9시간 이하 | 89 | 17.8 |
| 9시간 초과 | 4 | 0.8 |
| 무응답 | 16 | 3.2 |
| 합계 | 501 | 100.0 |

2.2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실태

다음으로, 학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서교육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38개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서교사'가 독서교육을 기획(34개교)하거나 실제 수행(33개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서를 포함하여 일반 교과교사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 담당교사'에 의해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실질적인 독서교육은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및 〈표 5〉 참조). 응답결과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간에 또는 사서교사(사서 포함)와 교과교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독서교육 기획자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사서교사 | 34 | 6.8 |
| 도서관 담당교사 | 339 | 67.7 |
| 학급 담임교사 | 25 | 5.0 |
| 기타 | 102 | 20.4 |
| 무응답 | 1 | .2 |
| 합계 | 501 | 100.0 |

〈표 5〉 독서교육 수행자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사서교사 | 33 | 6.6 |
| 도서관 담당교사 | 114 | 22.8 |
| 학급 담임교사 | 260 | 51.9 |
| 기타 | 92 | 18.4 |
| 무응답 | 2 | .4 |
| 합계 | 501 | 100.0 |

한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독서교육(독서관련 활동)의 유형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의견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전문 사서교사가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교사는 학생지도와 수업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도서관 문을 닫거나 기초적인 대출 반납만 하고, 또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해 학생들이 자료를 찾는 데에도 상당히 곤란을 겪곤 합니다. 학교에 도서관을 만드는 일은 아주 바람직하나 모든 것을 일반교사나 학부모에게 맡기는 것은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벌인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독서태도 정착과 도서관을 이용한 수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도서관담당교사의 답변 중에서)

〈표 6〉과 〈표 7〉에서 보듯이, ‘독서퀴즈대회’나 ‘독후감 공모전’, ‘독서토론회’, ‘도서전시회’ 등과 같이 상시적인 교육보다는 단기적인 독서활동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횟수도 과반수(54.9%)가 연간 0-3회에 지나지 않았으며, 월 1회(연 10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교는 51개교(10.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표 6〉 독서관련 활동의 유형(복수응답)

| 유형 | 빈도 | 퍼센트 |
|---------------|-----|------|
| 독서퀴즈대회 | 336 | 17.5 |
| 독서관련수업 | 252 | 13.1 |
| 독후감 공모전 | 192 | 10.0 |
| 독서토론회 | 188 | 9.8 |
| 독서교실 및 도서관 체험 | 184 | 9.6 |
| 독서관련 교사지도 | 180 | 9.4 |
| 도서전시회 | 90 | 4.7 |
| 독서교육 특강 | 53 | 2.8 |
| 기타 | 59 | 3.1 |

〈표 7〉 독서관련 행사 개최 횟수(연간)

| 횟수 | 빈도 | 퍼센트 |
|---------|-----|-------|
| 0회 | 7 | 1.4 |
| 1회 ~ 3회 | 268 | 53.5 |
| 4회 ~ 6회 | 119 | 23.8 |
| 7회 ~ 9회 | 46 | 9.2 |
| 10회 이상 | 51 | 10.2 |
| 무응답 | 10 | 2.0 |
| 합계 | 501 | 100.0 |

이어, 독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의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독서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편’(5점 척도에 따라 조사한 결과 평균값 3.59임)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관심이 많거나 아주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56.5%로, 관심이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 5.2% 보다 월등히 높았다(〈표 8〉 참조). 이에 대해 초·중·고등학교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독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65 > 중학교 3.43 > 고등학교 3.18’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평균값 4.33(5점 척도)으로, 응답자의 89.2%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표 9〉 참조). 이러한 결과는 독서교육의 기회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교사들조차도 점차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분위기의 조성 과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교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독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관심이 매우 많음 | 37 | 7.4 |
| 관심이 많은 편 | 246 | 49.1 |
| 보통 | 189 | 37.7 |
| 관심이 없는 편 | 25 | 5.0 |
| 관심이 전혀 없음 | 1 | 0.2 |
| 무응답 | 3 | 0.6 |
| 합계 | 501 | 100.0 |

〈표 9〉 학교 독서교육의 중요성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아주 중요함 | 253 | 50.5 |
| 중요함 | 194 | 38.7 |
| 보통 | 17 | 3.4 |
| 중요하지 않음 | 33 | 6.6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0 | 0.0 |
| 무응답 | 4 | 0.8 |
| 합계 | 501 | 100.0 |

2.3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에 대한 요구사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시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의 운영이나 독서교육의 실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나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의 운영이나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먼저, 설문에 응답한 501개교 중에서 절반이 넘는 학교(281개교/56.1%)에서 지금까지 학교도서관 운영이나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63개교로 전체의 12.6%에 불과하였고, 일부 학교에서 ‘타 학교 사서교사’(29개교/5.8%)나 ‘타 학교 도서관 담당교사’(14개교/2.8%)의 지원을 비공식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의 부재 속에서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공도서관이나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196개교(39.1%)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운영이나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향후 공공도서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무려 324개교(64.7%)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향후 공공도서관에 지원을 요청하고 싶거나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독서교육 및 독서행사’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이러한 결과는 그간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받은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와 사뭇 대조적이었다.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내용이 주로 ‘DLS 사용법 교육’이나 ‘학부모 도우미 연수’, ‘자료선정과 구입’, ‘자료분류와 DB구축’ 등에 집중되어 있어 학교 측의 요구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독서교육이나 독서행사와 관련하여

여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전문적인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업무 내용

| | 1순위 (빈도) | 2순위 (빈도) | 3순위 (빈도) | 가중치를 적용 한 종합순위 |
|----------------------|-------------|-------------|-------------|-------------------|
| 독서교육 및 독서행사 | 96 | 116 | 109 | 1 |
| 자료선정과 구입 | 143 | 14 | 19 | 2 |
| 장서점검 및 폐기 | 42 | 75 | 59 | 3 |
| 교육 및 특강 강사 지원 | 32 | 78 | 74 | 4 |
| 도서관 활용수업 | 74 | 35 | 24 | 5 |
| 자료분류 및 DB구축 | 53 | 54 | 4 | 6 |
| 도서관 이용지도 교육 | 13 | 27 | 16 | 7 |
| 순회문고 및 집단대출 서비스 | 10 | 12 | 53 | 8 |
| DLS 사용법 교육 | 15 | 19 | 16 | 9 |
| 학부모 명예사서 및 학생 도서부 교육 | 4 | 21 | 28 | 10 |
| 기타 | 3 | 1 | 5 | 11 |
| 무응답 | 16 | 49 | 94 | - |
| 합계 | 501 | 501 | 501 | |

Ⅲ. 독서 멘토링 활동의 경험

3.1 독서 멘토링 활동의 배경

우리 연구팀은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번에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직접 조사하였다. 조사는 부산시 소재 공공도서관 24개관(분관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율은 100%였다.

조사결과, 13개 공공도서관에서는 현재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공공도서관에서는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이들 도서

8) 현재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11개관 중 9개관, 지자체 소속 도서관 13개관 중 4개관이었다. 이처럼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경우 인력이나 예산부족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에서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총 30명으로 이들 중 사서직은 23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실정인어서, 현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가운데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한 전담 팀이나 전담 인력이 배치된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 업무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모두 ‘10% 이내’라고 응답하여,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하더라도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원 업무의 내용도 ‘순회문고나 집단대출 서비스’,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행사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어 ‘독서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향후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4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14개관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인력부족’(12개관)과 ‘예산부족’(7개관 - 중복응답)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학교도서관 지원 계획이 없는 도서관에서도 똑같은 이유(‘인력부족’(10개관)과 ‘예산부족’(6개관))를 들면서 학교도서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여,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원이 지원 계획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 여건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통해 열악한 학교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모든 공공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이처럼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단위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우리 연구팀은 ‘독서 멘토링’ 활동을 시도해 볼만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독서 멘토링 활동은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인력 대신 예비사서인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을 활용하고, 학교도서관의 장서를 매개로 독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대안이라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그리고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의 ‘연계’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공

9) 먼저,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 또는 연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관련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경우, 관내에 작은도서관 11개관을 지원 중이며,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만으로도 인력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공공도서관 지원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답변 중에서)
한편,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의견을 참조하라: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담당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도서관 차원이 아니라 지역대표도서관과 부산시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공도서관과 학교 간의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답변 중에서)

공도서관의 일방적인 지원이나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연구팀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과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한편¹⁰⁾, 서울시에서 추진한 학교도서관 내 ‘학부모 멘토링’ 프로그램¹¹⁾과 대학생의 ‘책 읽어주기 멘토링’ 프로그램¹²⁾ 등과 같은 유사 사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멘토링 활동의 효과와 실행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와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연구팀은 독서 멘토링을 위한 활동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하였다. 기본 계획은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의 독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되, 지역대표도서관인 부산시립시민도서관에서 지역의 학교도서관을 연결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한다는 것이었다.¹³⁾ 이와 더불어, 유사 사례 분석이나 사전 인터뷰를 통해 도출되었던 예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우리 연구팀은 독서 멘토링 활동의 기본 계획을 정리하고, 멘토로 참여할 학생들과 독서 멘토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학교도서관을 선정한 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들어갔다.

독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할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은 부산 지역 2개 대학에서 모집하였다. 우리 연구팀은 독서 멘토링 활동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였는데, 연구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51명)이 멘토링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독서교육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실무경험과 지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불어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클 것”이라는 이유로 독서 멘토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어, 독서 멘토링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학교를 선정하였다. 시범 학교는 앞선 설문조사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초등학교’ 중에서 우리 연구팀과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 2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독서 멘토링에 참여할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의 주관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독서 멘토링을 시행할 초등

10) 김성일, 윤미선, 한용진, “방과 후 학교교육 내실화와 효율적 교원 양성을 위한 대학생 교사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 제31권 제1호(2004), pp.209-230 ; 이길영, 황명식, “대학생 멘토링이 중학생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제59권, 제2호(2004), pp.237-268 ; 김지연, 정소연,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등.

11) 조인숙, 김희숙, “초등학교 도서관의 학부모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2호(2009), pp.155-166.

12) 양민화, 서유진, “대학생의 멘토링을 통한 읽기 중재 프로그램이 학습부진 학생의 읽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제8권, 제1호(2009), pp.87-110.

13) 이처럼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의 마련에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이 앞장선 것은 도서관법 제23조에 명시된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에 기반하고 있다.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은 2008년 4월 29일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위한 도서관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지역 내 모든 관중을 포괄하는 도서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학교의 도서관 담당교사로부터 학교도서관의 현황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독서활동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은 다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법과 독서 멘토링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전달받았다. 이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로부터 독서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와 각 사례별 효과, 그리고 프로그램 설계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한 우리 연구팀은 독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할 학생들로 하여금 부산시립시민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독서교실'을 참관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아나가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독서 멘토링 활동을 준비하는 데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되었다.

3.2 독서 멘토링 활동의 내용

독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은 멘토링에 앞서 부산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한 워크숍과 수업 시간에 익힌 내용 등을 토대로 독서 멘토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① 초등학교 학생들의 관심이나 독서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② 각종 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목록과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들이 추천한 도서목록 등을 확보한 후 개별 자료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예비 독서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어, ③ 예비 도서목록 중에서 내용의 적합성과 난이도, 흥미 등을 고려하여 독서 멘토링에 사용할 자료를 선별하고, ④ 이를 토대로 각 차시별 지도안을 작성한 후 사전 연습 및 자료 준비를 하였다. 시범운영단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는 '책읽어주기'나 '도서관 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이미 이수한 학생들이 다수 있었지만, 실질적인 수업 형태의 독서활동을 진행해 본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에는 우리 연구팀의 교수진과 도서관 담당교사, 공공도서관 사서 등이 자문의 형태로 함께 참여하였다.

2개 초등학교와의 의논 끝에, 우리는 2개 초등학교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형식으로 독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A초등학교에서는 학기 중(5~6월)에 매주 토요일에, 그리고 B초등학교에서는 방학 중(7월)에 독서캠프 형식으로 운영할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A초등학교의 경우 2004년에 도서관을 개관하였지만 사서교사(사서)가 없어 하루에 4시간 정도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었다. 또한,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토요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관련 활동은 전담인력의 부재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달리, B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담 사서가 배치되어 매주 토요일에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토요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색종이 접기 교실'이나 '영어교실' 등과 같이 도서관이나 독서와 무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수업을 기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이들 두 초등학교에서는 독서 멘토링 활동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우리 연구팀에서 계획한 독서 멘토링 활동의 주된 목적은 멘토와의 상호작용과 친밀감 형성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두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소개한 후 원하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멘토와의 상호작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할 초등학생의 수와 멘토로 참여할 학생의 수를 적절히 통제하였다. A초등학교의 경우 매주 7~8명의 멘토(운영자)와 30명 내외의 멘티(참여자)가 참여하였으며,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저학년(1~2학년), 중학년(3~4학년), 고학년(5~6학년) 등 세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B초등학교에서는 독서캠프 행사에 12~14명의 멘토(운영자)와 30명 내외의 멘티(참여자)가 참가하여 단체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독서 멘토링에 대한 안내와 지원, 그리고 참여 학생 관리 등은 두 초등학교의 도서관 담당교사와 사서가 각각 담당하였다.

독서 멘토링 활동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읽을 자료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한 다음, 멘토가 책을 읽어주거나 학생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책을 읽은 후, 마지막으로 읽은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하였다. 읽을 자료는 운문과 산문, 그리고 가족과 친구관계, 역사, 환경문제 등 다양한 형식과 주제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선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영상자료나 설명자료 등을 보충자료로 활용하였다. 독후활동은 읽은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글쓰기, 마인드 맵 작성하기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멘토링 활동에 소요된 시간은 매 차시 2시간이었으며, 매 차시가 끝난 후에 시범운영단(운영자와 교수진)과 도서관 담당교사 또는 사서가 함께 ‘평가회’를 가짐으로써 다음 활동에 평가결과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전체 독서목록 및 활동 내용과 프로그램의 사례는 다음 <표 11> 및 <표 12>와 같다.

<표 11> 독서 멘토링의 구성

| 차시 | 구분 | 내용 | 비고 | |
|----|----|------|---|-----------------|
| 1 | 저 | 독서목록 | 프란치스카 비어만. 책 먹는 여우 (김영사, 2001) | A 초등학교 (토요 멘토링) |
| | | 활동목표 |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면서 독서에 대한 흥미 가지기 | |
| | 중 | 독서목록 | 권정생. 엄마 까투리 (낮은산, 2008) | |
| | | 활동목표 |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기 | |
| | 고 | 독서목록 | 로알드 달. 마틸다 (시공사, 2004) | |
| | | 활동목표 | 책 속 인물이 되어 상황 바꾸어 보기 | |
| 2 | 저 | 독서목록 | 이억배. 술이와 추석 이야기 (길벗어린이, 1995) | A 초등학교 (토요 멘토링) |
| | | 활동목표 | 책 속 어휘를 익히고, 명절 문화 체험하기 | |
| | 중 | 독서목록 | 존 세스카.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보림, 2008) | |
| | | 활동목표 | 동일한 상황에 대해 상이한 관점으로 생각해보기 | |
| | 고 | 독서목록 | 존 세스카.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보림, 2008) | |
| | | 활동목표 | 동일한 상황에 대해 상이한 관점으로 생각해보기 | |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 | | | | |
|----|------|--|---|------------------------------|
| 3 | 저 | 독서목록 | 백석. 개구리 한술밥 (보림, 2006) | A 초등 학교 (토요 멘토링) |
| | | 활동목표 | 시를 감상하는 능력 키우기 | |
| | 중 | 독서목록 | 김용택. 쿵, 너는 죽었다 (실천문학사, 1998) | |
| | | 활동목표 | 시를 감상하는 능력 키우기 | |
| | 고 | 독서목록 | 김용택. 쿵, 너는 죽었다 (실천문학사, 1998) | |
| | | 활동목표 | 시를 감상하는 능력 키우기 | |
| 4 | 저 | 독서목록 | 류재수. 백두산 이야기 (보림, 2009) | |
| | | 활동목표 | 백두산과 우리 역사에 대한 지식 넓히기 | |
| | 중 | 독서목록 | 류재수. 백두산 이야기 (보림, 2009) | |
| | | 활동목표 | 백두산과 우리 역사에 대한 지식 넓히기 | |
| | 고 | 독서목록 | 류재수. 백두산 이야기 (보림, 2009) | |
| | | 활동목표 | 백두산과 우리 역사에 대한 지식 넓히기 | |
| 5 | 저 | 독서목록 | 윌리엄 스타이그. 당나귀 실베스타와 요술 조약돌 (다산기획, 1994) | |
| | | 활동목표 |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기 | |
| | 중 | 독서목록 |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시공주니어, 2000) | |
| | | 활동목표 | 주인공이 되어 글쓰기 | |
| | 고 | 독서목록 | 리혜선. 폭죽소리 (길벗어린이, 1996) | |
| | | 활동목표 | 조선족의 역사와 아픔에 대해 생각하기 | |
| 6 | 저 | 독서목록 | 모리야마 미야코. 노란 양동이 (현암사, 2011) | |
| | | 활동목표 | 소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발표하기 | |
| | 중 | 독서목록 | 황선미. 나쁜 어린이표 (웅진주니어, 1999) | |
| | | 활동목표 | 특정 인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 |
| | 고 | 독서목록 |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사자왕 형제의 모험 (창작과비평사, 2010) | |
| | | 활동목표 | 등장인물이 되어 상황 바꾸어 보기 | |
| 7 | 저 | 독서목록 | 앤서니 브라운. 돼지책 (웅진주니어, 2009) | |
| | | 활동목표 |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기 | |
| | 중 | 독서목록 | 채인선. 내 짝궁 최영대 (재미마주, 1997) | |
| | | 활동목표 | 친구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 |
| | 고 | 독서목록 | 방정환. 만년샤쓰 (길벗어린이, 1999) | |
| | | 활동목표 |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감정과 대처법에 대해 생각하기 | |
| 8 | 독서목록 | 임형진. 북극곰을 살려 주세요 (그린북, 2010) | B 초등 학교 (독서캠 프) | |
| | 활동목표 | 지구온난화의 실태를 이해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 | |
| 9 | 독서목록 | 서필선. 꿈을 싣고 비행기를 떠나요 (태동출판사, 2010) | | |
| | 활동목표 |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며,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해 생각하기 | | |
| 10 | 독서목록 | 이춘희. 아카시아 파마 (언어세상, 2006) | | |
| | 활동목표 | 책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전통놀이 익히기 | | |

〈표 12〉 독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사례

| | | | | | |
|-------------|--|--|------------------|------|----------------------------------|
| 날짜 | 2012. 7. 7. | 시간 | 오전 10:00 - 12:00 | 장소 | ○○초등학교 도서관 |
| 대상 | 3, 4학년 | 차시 | 7/7 | 읽을자료 | 방정환, 만년 샤스 |
| 운영자 (멘토) |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 2학년 △△△, △△△ | | | | |
| 학습목표 |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하고, 대처능력을 기른다. | | | | |
| 준비물 | [멘 토] 명찰, 스티커, 독후활동지, 빗그림책 PPT [학 교] 빔 프로젝터, 읽을자료(방정환의 『만년 샤스』) [참여학생] 명찰, 필기구 | | | | |
| | 시간 | 활동내용 | | | 자료 및 유의점 |
| 1교시 | 7' | • 서로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기 | | | |
| | 3' | • 7차시 학습목표와 활동내용 설명 | | | |
| | 10' | • Warming up (책에 대한 흥미 가지기) - 오늘 읽을 자료의 내용을 예측하여 발표하기 | | | |
| | 20' | • 책 읽기 - 멘토 1명당 3명의 학생에게 책 읽어주기 | | | |
| | 20' | • 독후활동(1) - 주인공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마인드맵 그리기 | | | 독후활동지 배부 마인드맵 작성법에 대해 설명하기 |
| 10' | 휴식 | | | | |
| 2교시 | 20' | • 독후 활동(2) - 어려움에 직면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당시 자신의 감정과 대처 행동에 대해 마인드맵 그리기 | | | |
| | 20' | • 독후 활동(3) -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 | | |
| | 10' | • 정리 및 마무리 | | | |
| 비고 | 멘토링 마지막 차시이므로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 없음. | | | | |

3.3 독서 멘토링 활동의 효과

우리 연구팀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독서 멘토링은 그간 폐쇄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학교도서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공공도서관과 일선 학교, 그리고 대학의 문헌정보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멘토링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은 활동 전과 후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

시한 후 그 결과 값을 비교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평가보다는 멘토링의 운영자와 참여자가 느낀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독서 멘토링 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독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험적 지식을 얻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멘토링 활동일지와 관찰, 면담을 통해 분석한 독서 멘토링 활동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독서 멘토링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되었던 독서가 멘토링을 하면서 재미있어졌다”는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다. 심지어 일부 학생은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는 반응도 보였다. 멘토링 활동이 끝난 후 “멘토링 시간에 읽었던 책을 학교 문고에 비치해 줄 것을 담임선생님께 요청하였다”고 자랑하거나 “부모님께 책을 사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였다.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학교 측에서는 멘토링에 사용한 책을 학교도서관에 더 구비하거나 관련 자료들을 추천도서코너에 배치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도서관의 대출자료가 확연하게 늘어나는 것을 직접 실감하게 되었다. 또한, 독서 멘토링이 진행될수록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자 A초등학교의 도서관 담당교사는 “담임선생님들께 한 학급당 2-3명 내외만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독서 멘토링을 통해 책읽기와 다양한 독후활동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독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운영자(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은 멘토링 과정에서의 몇 가지 요인이 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먼저, 운영자와 편안하게 책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교감하는 시간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독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자효과’(double impact)에 기반하고 있다. 이번 멘토링에서도 이러한 양자효과는 분명하게 감지되었다. 참여자들은 ‘책읽기’ 자체보다 운영자와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고, 칭찬, 인정, 관심 등과 같은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특히 좋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운영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운영자들은 도서관과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예비사서로서 기본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멘토링이 끝난 후 운영자가 기록한 활동일지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이 자리에 앉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녀 지도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멘토 소개를 할 때도 우리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친구들과 장난치고 떠들어서 당황스러웠다. 산만함은 책을 읽어주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 (중략)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완전히 바뀌었다. 예상과 달리 ‘저요! 저요!’라는 말도 많이 하고, 집중도 잘하여 뿌듯했다.

...(중략) '선생님 저희 누나는요~'라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칭찬과 적절한 반응을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과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제 독서활동에 참가하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다." (2012년 5월 19일, A초등학교의 독서 멘토링 활동일지 중에서 발췌)

이와 더불어, 운영자들은 "독서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물질적 보상을 활용한 것"을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된 요인으로 꼽았다. 운영자들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티커 관을 배부하고 스티커를 모으게 하였다. 책읽기나 독후 활동을 완수한 후에 스티커를 모은 다음, 전체 멘토링 일정이 끝났을 때 그동안 모은 스티커의 수에 따라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였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자들은 "초기에는 분명히 이러한 방법이 참여자들의 독서 활동에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지만, 멘토링이 진행될수록 동기는 스티커가 아니라 독서의 즐거움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보상은 아이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는데 계속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였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적절한 독서교육 방법을 적용하거나 책읽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영상자료나 신문 등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한 것도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계속해서 다음 활동일지를 살펴보자.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은 대체로 책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집중력이나 흥미가 많이 떨어져있다는 것을 이번 멘토링 활동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은 글보다는 그림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고, 책을 읽는 것보다 이야기를 듣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소리 내어 읽는 활동에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활동 초반에는 책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활동을 하여 독서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도했고, 책읽기 시간에는 책을 읽어주다가 아이들의 반응을 확인해가며 함께 책을 읽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이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2012년 7월 7일, A초등학교의 독서 멘토링 활동일지 중에서 발췌)

"책을 읽은 후 관련 영상자료를 보여준 후 그룹으로 나누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자료 감상은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집중력을 보이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적절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2012년 5월 12일, A초등학교의 독서 멘토링 활동일지 중에서 발췌)

한편, 독서 멘토링 활동을 계획할 당시 학교 측에서는 대학생들이 운영자로 참여한다는 데 대해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우려는 독서 멘토링이 진행되면서 점차 사라졌다. 독서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실한 준비과정과 참신한 수업 내용에 대해 두 초등학교 모두 상당히 만족하였으며, 특히 A초등학교의 도서관 담당교사는 “학교장을 비롯해 많은 교사들이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독서 멘토링을 계획할 당시 본인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였던 B초등학교의 전담사서의 경우에도 “교사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독서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자신(사서)의 역할이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반응과 함께, 독서 멘토링을 시범 운영한 두 초등학교에서는 애초에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난 후에도 멘토링 활동을 지속해 줄 것을 우리 연구팀에 요구하여 왔다.

이처럼 우리 연구팀은 이번 체험을 통해 독서 멘토링이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나 운영상의 미숙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독서자료의 선정’에 있었다.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고, 도서관 실무자들의 조언을 참조해 가면서 독서자료를 세심하게 선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거나 학생들의 흥미를 전혀 유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많은 학생들이 이미 읽은 자료이거나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 짧은 시간 내에 내용을 파악하기에 힘든 자료 등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가 현저히 떨어졌다. 또한, A초등학교의 경우 두 학년을 한 팀으로 묶어 그에 따른 독서자료를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속도나 어휘력 등의 수준 차이로 인해 효과적인 독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적절한 독서자료의 선정이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 한다면, 운영상의 미숙함은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축적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독서 멘토링의 운영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바로 참여자들의 돌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의 부족이었다. 가령, 독서토론을 진행하는 도중 남녀 학생들 간의 언쟁으로 토론이 불가능해지거나 다른 학생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발행하였을 때 운영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였음”에 대해 토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멘토링 이전에 실시한 워크숍이나 이론적인 지식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운영자들이 작성한 활동일지에는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군데군데 나타나 있다. 그 중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책을 읽은 후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팀을 나누어 모의재판을 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무난하게 잘 진행되나 싶더니 갈수록 아이들의 반응이 격해졌다. 제법 논리정연한 토론을 하다가 점차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독서교육론 수업시간에 이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독후활동으로 독서토론이 효과적이라고 나

와 있지만, 실제로는 토론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제재하는 방법을 잘 몰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2012년 5월 19일, A초등학교의 독서 멘토링 활동일지 중에서 발췌)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참여하던 한 아이가 독서활동이 재미없고 지겹다고 느껴졌는지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다가 급기야 중간에 가방을 메고 집에 가버렸다. 장난이겠지, 다시 오겠지 하고 뒤따라갔는데 이미 학교를 나가고 없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상당히 난감하였다.” (2012년 6월 30일, A초등학교의 독서 멘토링 활동일지 중에서 발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멘토링 집단의 규모와 관련한 시행착오도 있었다. 멘토링을 실시하는 집단의 규모는 효과적인 독서활동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독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자와 참여자 간은 물론이고 참여자들 서로 간에도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멘토링의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A초등학교에서 독서 멘토링의 참여자는 학년별로 10명 내외였으나, 일시적으로 17명까지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매 차시에 2-3명의 운영자가 독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운영자 1명이 참여자 5-6명과 이러한 상호작용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에 비해, 12-14명의 운영자가 독서 멘토링에 참여한 B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운영자 1명이 학생 2-3명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는 운영자 1명에 2-4명의 참여자가 최적의 규모이며, 5명을 넘어설 경우 독서 멘토링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 연구팀은 독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멘토링의 성과와 더불어 한계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매 차시 독서 멘토링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졌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범 운영의 전체 일정을 마무리한 후 우리는 이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독서 멘토링 활동의 지속 여부와 향후 적용 전략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시작하였다.

IV. 독서 멘토링 활동의 한계와 교훈

이번 독서 멘토링 활동은 준비부터 시범 운영까지 소요된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운영자로 참여했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모두에게 매우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독서 멘토링 활동의 경험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현장에의 적용가능성과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몸소 실천하면서 점검하였다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독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의 뜨거운 참여의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 그리고 학교장을 비롯한 일선 교사, 학부모, 참여 학생들의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 연구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서 멘토링 활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글의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이 연구는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의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지금부터는 우리의 경험에 기초하여 독서 멘토링 활동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독서 멘토링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리고 문헌정보학과나 전문직 단체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계획된 활동이 끝나자 우리 연구팀은 독서 멘토링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독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스스로 보고 느꼈던 것 외에도, 두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독서 멘토링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보다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선 학교들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독서 멘토링 활동을 확장하는데 대해 우리 연구팀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독서 멘토링 활동이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독서교육을 강화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를 전담하는 사서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우리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이번 독서 멘토링 활동을 통해 더욱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기본 인프라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인 사서교사 없이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였다. 더불어, 독서 멘토링에 대한 성과가 아무리 뛰어나다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완'이자 '차선택'일 뿐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활동을 통해 더욱 명료해졌다. 그러나 전담인력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보니, 우리가 추진하는 독서 멘토링 활동이 아무리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잘못 활용될 수 있다는데 대한 우려 또한 남아있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우리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확보를 위해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 전문직 단체, 일선 학교와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한편, '방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의 독서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독서 멘토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독서 멘토링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번 활동의 경험으로부터 개선책의 마련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연구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에 우리 연구팀은 우리가 경험한 독서 멘토링 활동의 경험을 일일이 되짚어보면서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우리 연구팀은 이번 활동을 통해 독서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의 특성이 보다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두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독서 멘토링 활동은 학년에 따른 임의의 구분만 두었을 뿐 모든 활동에 있어 참여자의 특성이나 요구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격이나 성별, 관심, 수준의 차이, 환경적 특성 등은 독서 멘토링 활동을 전개할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령, 성격이 소심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학생의 경우 두 학년으로 구성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보였다. 나아가, 동일한 자료에 대해 남녀 학생들의 반응이 상이하거나 같은 학년이라 하더라도 읽기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집단을 구성한 후 각 집단에 보다 적합한 책읽기 자료를 선정하고 독서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독서 멘토링 활동이 단순히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보다 깊이 있는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창의적 사고의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 활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이에 우리 연구팀에서는 일선 학교 또는 담임교사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멘토링에 참여할 학생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맞춤식'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멘토링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 분석을 통해 재구성하되, 세부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읽을 자료에 대한 흥미 유도, 책읽기, 독후활동 등 세 단계로 진행되었던 방식은 참여자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독서활동을 장려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번 활동을 통해 깨달은 두 번째 교훈은, 독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운영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것이었다. 선행연구와 유사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멘토링을 전개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자의 자질과 능력임을 확인하고, 우리는 활동에 앞서 워크숍과 개별지도, 평가회, 그리고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진행하는 '어린이 독서교실'에의 참관 등을 통해 독서 멘토링을 진행할 학생들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데 특히 중점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다양한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이 '핵심' 운영자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자의 부족한 자질을 보완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자질 부족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참여자의 돌발 행동이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이론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실전에 적용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미흡함이 많이 드러났다.

독서 멘토링 활동에 있어 운영자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볼 때 내실 있는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활동에 운영자로 참여한 학생들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바로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의견을 참조하여 실전 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 운영자 교육을 보다 확대하되, 이에 못지않게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연습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번 활동에 앞서 우리가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는 주로 실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이론' 교육의 성격이 짙다는데 있었다.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독서교실』에 직접 참가하여 실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 또한 간접 경험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수요자에 대한 이해, 독서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지도안 작성, 효과적인 운영방법 등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 투입되는데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단기적 교육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독서교육의 주체로서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독서 멘토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학교현장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메뉴얼'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우리가 경험한 두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학교도서관의 시설, 자료, 인력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 독서활동의 경험 등에서 많은 편차를 보였다. 독서 멘토링의 형식도 토요수업과 독서캠프로 각기 달랐으며, 학교도서관에 전담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도 독서 멘토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이러한 상황적 변수를 고려하여 독서 멘토링 활동을 차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멘토링 활동의 특성상 이러한 노력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쉽지는 않다는 데 있다.

이에 우리 연구팀은 효과적인 독서 멘토링 활동을 위한 운영지침을 제공하고, 다양한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메뉴얼'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메뉴얼은 이번 활동을 통해 확보한 경험적 지식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독서 멘토링 활동 경험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도서관의 여건에 따른 독서 멘토링 활동 방안은 물론이고, 사서교사와 사서의 유무나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 흥미에 따라 적용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독서 멘토링 활동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며, 독서활동의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검증된 수준별·상황별·학년별 독서자료 목록이나 독후활동 전략 또한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메뉴얼은 멘토링의 운영자로 참여하는 학생 개인의 경험에 그칠 수 있는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멘토링 활동에 멘토로서 처음 '투입'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팀의 고민은 독서 멘토링 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체계에 관

한 것이었다. 이번 독서 멘토링 활동은 일종의 시범 사업으로서 참여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역대표도서관인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이 나서고, 문헌정보학과 교수진과 공공도서관 사서, 그리고 독서 멘토링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독서 멘토링 활동을 지속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지원이나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독서 멘토링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운영협의체의 마련이 절실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 독서 멘토링의 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운영협의체는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실무자(사서교사나 사서, 도서관 담당교사)는 물론이고,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운영협의체는 리더십과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에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독서 멘토링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멘토링 활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멘토(운영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을 담당하면서 거시적 차원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V. 결 론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도서관이나 독서교육의 경험이 일천한 교사들의 경우 독서교육이 중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독서교육이 가지는 의미나 영향력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서 멘토링 활동은 이들의 인식 전환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 이번 활동을 통해 분명하게 감지되었다. 독서의 즐거움을 깨달아가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독서 멘토링 활동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던 학부모를 통해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차츰 변해가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전담인력의 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독서 멘토링은 멘토링에 참여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에게도 단순한 만족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일지와 면담, 평가회 등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의견은 이번 독서 멘토링 체험이 단순히 봉사활동과는 차별화되는 유익한 활동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멘토링 시작단계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가졌던 “불안한 마음”은 “인격적 성숙의 기회가 된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변해갔고, 학교에서 접할 수 없었던 ‘현장 경험’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만족감과 긍정적인 변화 또한 기대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독서 멘토링 활동이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독

서교육을 강화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뒤로 한 채, 우리 연구팀이 독서 멘토링 활동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배경에는 이러한 참여자와 운영자의 생생한 경험과 반응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지난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연구팀은 새로운 활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활동에서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던 성찰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이번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조차도 문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강화를 위한 발전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연구를 기점으로, 현장에 기초한 연구,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모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장과 연구자가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가고, 개발해 나가는 분위기가 우리 학계에 더욱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고문헌

- 권은경.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제고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지원방안.” 사회과학연구(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10집, 제2호(2002), pp.35-52.
- 김미옥. “사회복지학에서의 실행연구 적용과 유용성.”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3호(2009), pp.179-204.
- 양민화, 서유진. “대학생의 멘토링을 통한 읽기 중재 프로그램이 학습부진 학생의 읽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제8권, 제1호(2009), pp.87-110.
- 윤유라, 이제환. “일본의 독서교육에서 학교도서관의 의미: 학생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10), pp.187-209.
- 이경민. “초등학생 독서교육을 위한 도서관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4), pp.95-117.
- 이기명. 학교도서관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모색 :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3.
- 이용남.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체제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pp.353-372.
- 이용숙 등. 실행연구방법. 서울 : 학지사, 2005.
- 정동열, 김성진.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3권, 제2호(2002), pp.5-28.

- 조인숙, 김희숙. “초등학교 도서관의 학부모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2호(2009), pp.155-166.
- 한복희 등.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체계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1호(2010), pp.267-295.
- 한윤옥, 박철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협력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2004), pp.337-357.
- Fitzgibbons, Shirley A. *School and public library relationships: essential ingredients in implementing educational reforms and improving student learning*. <<http://www.ala.org/aasl/aaslpubsandjournals/slmrb/slmrcontents/volume32000/relationships>> [cited 2012. 7. 23].
- O'Brien, Rory. *An Overview of the Methodological Approach of Action Research*. <<http://www.web.ca/robrien/papers/arfinal.html>> [cited 2012. 5. 10].